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構成과 要件에 대한 試論

姜勇仲*

<목 차>

1. 서론
2.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와 관련된 몇가지 개념에 대하여
 - (1) 近代中國語와 近代中國語 語彙
 - (2) 中國語歷史語彙學
3.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構成
4.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要件
5. 맺는말

1. 서론

近代中國語 語彙研究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중국어 전반에 대한 연구 중 중국과 비교할 때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 중 하나이다. 연구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연구자의 분포에서도 절대적 약세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문의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존하는 우리의 近代中國語 語彙研究 자료의 중요성과 학문적 가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 일례로 《水滸志》《三國演義》《西廂記》 등의 최초의 사전¹⁾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만들었다. 그리고 《朱子文集》에 대한 주석과 상관 辭書는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세계 最高이자 最古

* 成均館大 講師

1) 白斗鋪, 《註解語錄總覽》, 翰南書林, 1888.

이다.²⁾ 게다가 《朱子語類》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석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³⁾ 박재연 교수가 근년에 행한 조선시대 언어학 자료에 근거한 近代中國語 語彙의 집대성⁴⁾도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새로운 연구영역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近代中國語 語彙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振作은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본고는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構成과 要件에 대해 시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와 관련한 몇가지 개념에 대하여

(1) 近代中國語와 近代中國語 語彙

近代中國語란 시기적으로 中古中國語와 現代中國語의 사이에서 이 두 시기를 이어주는 교량적 위치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中古의 경우 東漢시대(서기 1세기)에서 隋代(7세기 초)이고, 近代는 初唐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이며, 현대는 그 이후에 해당한다.⁵⁾ 이 시기구분법이 확정적으로 수용된 계기는 2000년 10월 북경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中古漢語學術研討會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의 分期問題에 있어서 王力의 4분법 呂叔湘의 2분법 이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방법은 蔣紹愚 선생의 3분법 이었다. 그러나 東漢부터 唐 이전의 기간은 上古와 近代의 중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명확히 독립시키지 못해 중국어사 分期問題의 宿題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2) 柳鐸一, <朱子書節要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書誌學研究》第5,6合輯, 연세대학서지학회, 1990) 및 拙稿 《朱子語錄解研究》(성균관대학교 1995년 석사학위 논문) 참조.

3) 李宜哲(1703-1778), 《朱子語類考文解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

4) 박재연, 《中朝大辭典》, 선문대학교출판부, 2002.

5) 이 시기구분은 아래의 두 자료에 근거했다.

朱慶之 編 《中古漢語研究》第二集, 商務印書館, 2005.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

중국어사 分期問題의 핵심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시기를 구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선 이 문제에 천착하여 2000년 회의 이전의 중국어사 分期問題에 관련한 논의의 前史를 소개하고자 한다.⁶⁾

중국어사의 시기구분에서 ‘近代漢語’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지는 1980년대 초이다.⁷⁾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近代’란 어느 시기를 말하는가? 중국사의 시기구분에서 ‘近代’는 阿片戰爭(1840)이 이후로부터 五·四運動(1919)에 이르기까지의 80여년의 歷史時期를 말한다. 그러나 중국어사에서의 ‘近代’는 중국사의 시기구분에서 말하는 ‘近代’와는 다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漢語史 分期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王力은 漢語史를 아래의 4期로 나누고 각 시기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⁸⁾

1. 西紀 3世紀 이전(五胡의 亂 以前)까지를 上古期라 한다.(3,4세기는 過渡段階);
 - (1) 判斷文에서 일반적으로 繫詞를 사용하지 않았다.
 - (2) 疑問文에서 代詞賓語는 動詞의 앞에 놓였다.
 - (3) 入聲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그중 하나는 後代에 去聲으로 변했다). 等等.
2. 4세기로부터 12세기(南宋前半)까지를 中古期라 한다.(12,3세기는 過渡段階);
 - (1) 口語의 判斷文에서 繫詞는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되었다.
 - (2) 處置式이 생겨났다.
 - (3) 完整的 ‘被’字式 被動文이 보편적으로 응용되었다.
 - (4) 形尾⁹⁾ ‘了’, ‘着’이 생겨났다.
 - (5) 去聲字의 출현. 等等.

6) 이 부분은 拙稿(1995)65-68쪽을 참조하였다.

7) “近代漢語這一名稱, 是最近十多年才在語言學界通行開來的…….” 劉堅 外 《近代漢語虛詞研究》 語文出版社 1992, 前言.

8) 王力 《漢語史稿》, 《王力文集》 第九卷 山東教育出版社 1988, 48-49쪽.

9) 構形法 上的 語尾를 말한다. (“如果說現代漢語有形態的話, 它的形態首先表現在動詞詞尾 ‘了’, ‘着’上面. 嚴格地說, 它們不是詞尾, 而是形尾, 因為已經不是構詞法的問題, 而是構形法的問題了.”) 앞의 책 396쪽.

3. 13세기에서 19세기를 近代로 삼는다.(1840 - 1919는 過渡段階);

(1)北方話에서 全濁聲母가 消失되었다.

(2)‘-m’尾韻이 北方話에서 消失되었다.

(3)北方話에서 入聲이 消失된 것. 等等.

4. 20세기 이후(五·四運動 以後)를 現代로 삼는다;

(1)西洋語法을 적당히 흡수하고,

(2)複音節詞가 대량으로 증가 했다. 等等.

B. Karlgren은 《詩經》 이전을 太古漢語, 《詩經》 이후 東漢까지를 上古漢語, 六朝에서 唐을 中古漢語, 宋代를 近古漢語, 그리고 元明時期를 老官話 로 각각 나누었다.¹⁰⁾

太田辰夫는 아래와 같이 5段階의 8期로 구분하고 있다.¹¹⁾

上古; 第1期: 商(殷)周, 第2期: 春秋戰國, 第3期: 漢

中古; 第4期: 魏晉南北朝

近古; 第5期: 唐五代, 第6期: 宋元明

近代; 第7期: 清

現代; 第8期: 民國 以後

呂叔湘은 晚唐五代를 경계로 古代漢語와 近代漢語로 兩分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現代漢語는 단지 近代漢語의 內部分期로, 古代漢語·近代漢語와 더불어 3鼎立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¹²⁾ 그리고 現代漢語란 단지 言文의 分岐로 볼 때 五·四運動 이후에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

10) B. Karlgren 《中國音題學研究》, 蔣紹愚(1994) 2쪽에서 재인용.

11) 太田辰夫 《漢語史通考》江藍生,白維國譯 重慶出版社 1991, 2쪽.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中古’와 ‘近古’를 ‘中世’, ‘近世’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12) “……, 以晚唐五代爲界, 把漢語的歷史分成古代漢語和近代漢語兩箇大的階段 是比較合適的. 至于現代漢語, 那只是近代漢語內部的一箇分期, 不能跟古代漢語和近代漢語鼎足三分” 呂叔湘 《近代漢語指代詞》 學林出版社 1985, 序(1984年 9月 14日字).

는 現代漢語란 語彙, 語法, 語音을 망라하는 漢語史의 독립된 分期라기 보다는, 現代中國語에서 言文一致가 확립된 五·四以後의 새로운 시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現代漢語는 결국 近代漢語의 한 段階로, 그 어법은 近代漢語의 어법이고, 그의 常用語彙는 近代漢語의 常用語彙로, 다만 이러한 기초에서 발전해 나왔을 따름이라고 했다.¹³⁾

앞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近代中國語의 上限과 下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6년 上海에서 개최된 第2次 近代漢語討論會 이후 古代, 近代, 現代의 '3分法'이 통용되고, 近代漢語의 上, 下限에 대한 의견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이 회의에서 胡明揚은 <近代漢語의 上下限和分期問題>라는 논문을 통해 隋末唐初 上限說과 明末清初 下限說을 제시했다. 胡明揚은 그 근거로 아래의 도표를 제시했다.¹⁵⁾

	早期(7-10/11C)	中期(10/11-14C)	晚期(14-17C)
-p, -t, -k	變化始作	解體	消失
全濁聲母	變化始作	解體	消失
-m	變化始作	變化	漸次消失
我, 你, 他	出現始作	存在	存在
這, 那	出現始作	存在	存在
的	出現始作	存在	存在
了	出現始作	存在	存在
哩(在裏)/呢	出現始作	存在	存在
"將"字句	出現始作	存在	漸次消失
"動+將+趨"	出現始作	存在	漸次消失
"把"字句	出現始作	存在	存在

13) "……, 漢語의 言文分岐就維持了很長一箇時期, 直到五四運動之後才重新統一起來. ……所以, 把五四時期定爲現代漢語開始的時期是合理的." "……, 現代漢語只是近代漢語的一箇階段, 它的語法是近代漢語的語法, 它的常用詞彙是近代漢語的常用詞彙, 只是在這箇基礎上加以發展而已." 劉堅 《近代漢語讀本》 上海教育出版社 1985, 呂叔湘의 序(1983年 9月 14日字).

14) 中國에서의 近代漢語 연구는 文革 이후 학술계가 맞은 새로운 국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한어에 대한 저작이나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해외의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몇몇 대학에서는 학부나 대학원에 近代漢語 課程을 신설하였고, 1985년 武漢에서 第一屆 全國近代漢語學術會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袁賓 <論近代漢語>, 《廣西大學學報》 1987年 1期, 94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近代中國語 시기구분은 分期에 있어서 系統性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잡하게 쓰이던 명칭들(‘古白話’, ‘早期白話’ 혹은 ‘中古, 近古口語’ 등)을 ‘近代漢語’라는 하나의 述語로 통일하고 있다. 이는 漢語史의 分期에서 하나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진전된 논의는 蔣紹愚(1994)¹⁶⁾에 보인다. 胡明揚은 早期白話를 포함해야 한다면 上限에 隋末 唐初 작가인 王梵志의 詩와 같은 작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蔣紹愚先生은 變文 이전의 문헌자료에서 새로운 요소는 散見 될 뿐이며,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하여 唐代 初期를 上限으로 삼았다. 下限에 있어서도 清代 乾隆年間에 쓰인 《儒林外史》나 《紅樓夢》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現代漢語와 같으며, 語音에 있어서도 乾隆八年(1743)에 나온 《韻音正考》에 이르러 [tsi]와 [ki]가 모두 [tci]로 변함으로서 近代漢語와 現代漢語에서 최후의 차이까지 없어졌다고 하여 18세기 중엽으로 본다고 했다.¹⁷⁾

이에 2000년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중국어사의 시기구분에서 중고시기를 명확히 구분해 내면서 전체적으로는 드디어 비교적 완비된 4분법이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特記할 만한 사실은 이를 계기로 蔣紹愚 선생이 제시한 근대중국어 시기는 드디어 대다수 학자들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近代中國語 語彙란 ‘初唐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생겨난 口語나 口語를 반영한 書面語에 사용한 중국어 어휘’로 정의할 수 있다.¹⁹⁾

15) 胡明揚 <近代漢語의 上下限和分期問題> 胡竹安, 楊耐思, 蔣紹愚 編 《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1992, 11-12쪽.

16)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況》, 北京大學出版社, 1994.

17) 蔣紹愚(1994), 6-7쪽.

18) 결과적으로 중고중국어의 分立은 장소우 선생의 3분법 중 상고중국어를 상고와 중고로 분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分立의 실천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최근 중고중국어 연구의 풍성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발전의 객관적인 추세를 적실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 4분법의 확립은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9) 최근의 중국어사 分期問題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李無未, 邱宏香 <漢語史研究基本理論範疇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6年第2期, 鄒德文, 汪銀峰 <漢語史分期問題分歧原因>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6年第2期, 馬連 <談談兩漢詞彙的分期歸屬問題> 《學術論壇》2006年第2期 등이 있다.

(2) 中國語歷史語彙學

中國語歷史語彙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기하고 발전시킨 학자는 蔣紹愚 선생이다. 그는 1988년 《古漢語詞彙綱要》前言에서 고문헌의 이해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가 곧 어휘라며 어휘연구의 중요성²⁰⁾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지금까지 제대로 된 《中國語語彙史》나 《中國語歷史語彙學》 등과 같은 저작이 없음을 개탄하여 傳統 訓詁學과 現代 語義學을 결합한 中國語歷史語彙學 수립을 제안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蔣紹愚 선생의 이 저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대중국어 어휘학 개론서에서는 傳統 訓詁學의 내용과 일반 어휘학을 형식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어휘 체계(詞彙系統)”나 現代 語義學의 핵심개념에 속하는 “義位”, “義素”²¹⁾ 등의 기본개념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어휘는 외형적으로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듯하나, 그것이 필경 인간의 언어활동 속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체계성이나 그들 간의 상호적 내재적 관련성이 없을 수 없다. 현대 語義學은 바로 이상의 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바, 어휘 층면에서 상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역사언어의 연구 중 그 밖의 영역(예를 들어 어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蔣紹愚 선생의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古漢語詞彙綱要》前言에서 제안한 내용이나 《古漢語詞彙綱要》에서 분석한 것들이 中國語歷史語彙學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²²⁾ 이점은 蔣紹愚 선생의 아래 연구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20)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우선 近代中國語 語彙가 上古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간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불가결하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대중국어 어휘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은 배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소우 선생은 근대중국어시기에 古白話가 점차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면서 近代中國語 語彙研究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현대중국어 白話의 직접적인 기원이 바로 근대중국어 시기라는 것이다.(《古漢語詞彙綱要》 236쪽 참조.)

21)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中國語 語彙學에 관련된 용어의 문제이다. 현재 국내의 中國語 語彙學 중 중국학계가 서방에서 도입한 주요술어들은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향후 이 분야의 연구자가 주의해야 하는 문제로 남긴다.

22) 실제 前言에서 “千里之行, 始於足下”라 했다.

<兩次分類--再談詞彙系統及其變化>, 《中國語文》, 1999, 第5期.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

<漢語詞義和詞彙系統的歷史演變初探--以“投”爲例>, 《北京大學學報》, 2006, 第4期.

즉 하나의 분과 연구 영역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 틀의 精練化와 深化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과학적이고 매우 실증적이다. 예를 들면 《近代漢語研究概要》에서는 “概念場”, “層級結構”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어휘체계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소개했으며, 후속 논문(2006)에서는 “概念域”과 “概念要素”를 이용하여 중국어의 전 역사를 망라해 “投”가 나타내는 의미와 그들 간의 관계를 詞義系統과 詞彙系統으로 양분하여 분석했다. 이는 中國語歷史語彙學의 진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古漢語詞彙綱要》에서는 비록 詞彙系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實例로 논증하지 못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드디어 例證하여 보임으로써 詞義系統과 詞彙系統의 연구 가능성과 유효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詞義系統과 詞彙系統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中國語歷史語彙學의 연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전했고 그 분과 과학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현대 중국 언어학 연구의 두 기념비적 저작--어법에서는 《馬氏文通》, 성운학에서는 칼그렌의 《中國聲韻學研究》--역시 후속적인 연구에 의해 그 가치가 더 확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中國語歷史語彙學의 발전에서도 더 진전되고 확장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近代中國語 語彙研究的 構成

近代中國語 語彙研究的 構成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蔣紹愚 선생의 분류체계를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화하는 과정이 발견되는 바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古漢語詞彙綱要》(1989)에서는 近代中國語 語彙研究的 構成을 아래의 다섯 개로 구분했다.²³⁾

- 1) 단어의 풀이
- 2) 常用詞 변화 발전의 연구
- 3) 構詞法의 연구
- 4) 각 단계의 어휘계통연구
- 5) 근대 중국어 어휘 발전사의 연구

그리고 《近代漢語研究概要》(2005)에서는 이상 다섯 가지에 “특정 텍스트의 어휘연구(專書詞彙研究)”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중 가장 기초가 되고 연구 성과 또한 가장 풍성한 것은 “단어의 풀이”이다. 나아가 현재 각 시대별(구체적으로 본다면 朝代別) 어휘사전(“斷代詞典”)이 나온 것을 감안 한다면 지금 이 방면의 연구 결과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단어의 풀이” 영역에서 논의 되는 것이 바로 풀이 방법이다. 대표적인 풀이 방법으로는 因聲求義, 排比歸納法, 演繹法, 文脈利用法, 辨字辨音法, 方言例證法, 舊註參照法, 語源追溯法 등이 있다.

상용사의 변화 발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아래의 두 저작을 들 수 있다.

汪維輝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南京大學出版社，2000.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漢語大詞典出版社，1999.

이중 汪維輝의 연구는 중국에서 양에 있어서나 연구의 깊이에 있어서나 대단

23) 책에서는 “근대중국어 어휘연구의 방법”이라고 했으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다섯 가지 구성의 하위 층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저작에서는 41개 組의 常用詞를 대상으로 중고 중국어 시기의 주요저작을 추적해 그 교체관계를 규명했다.

構詞法의 연구는 연구정도나 인식 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의 연구 동향으로 볼 때 이 방면의 연구는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각 단계의 어휘계통연구와 근대 중국어 어휘 발전사의 연구는 주제도 클 뿐 아니라 난이도 또한 높아서 아직까지는 모색기로 볼 수 있다. 비록 《明代漢語詞彙研究》(顧之川, 河南大學出版社, 2000)와 같은 시대별 어휘사 연구 저작이 있기는 하나 방법론에서나 자료의 취합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정 텍스트의 어휘연구(專書詞彙研究)는 上古, 中古時期에는 많은 성과가 있으나 唐代 이후로 가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 근대 중국어 어휘연구의 많은 영역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새로이 도전할 여지도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近代中國語 語彙研究的 要件

이상의 논의에 基盤하여 近代中國語 語彙研究的 要件을 理論, 資料, 研究자의 연구 수행 능력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理論에서는 다시 巨視적 측면과 微視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中國語歷史語彙學의 기본원리와 전개과정, 그리고 그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본 지식의 습득과정이 있다. 특히 “義位”, “義素”, “概念域”, “概念要素” 등등의 개념과 속성 그리고 운용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中國語歷史語彙學의 새로운 이론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傳統 訓詁學과 現代 語彙學의 제반 구성요소

와 개념 및 그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이론의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어휘연구의 기본적인 속성과 현행 연구의 제한성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대중국어 어휘연구에 대해 과거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음운이나 어법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어휘연구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휘는 언어의 세 요소 중 체계적 연구가 가장 힘든 분야라는 것이다. 어휘는 표면적으로 항상 개별적이고 흩어져 있어 이를 系統化 시키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다. 어법연구에는 品詞, 語法範疇, 構詞法 등의 틀이 있으며, 음운학에도 聲韻調 및 音位學의 다양한 개념이 있다. 그렇다면 어휘연구 영역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방대한 양의 어휘를 처리할 것인가. 이론 방면의 요건이란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資料의 측면은 좀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 즉 1차 자료의 선별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연구결과의 가치를 결정짓는 관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활용과정에서는 전산자료(DB)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바, 전산자료의 초기의 설계과정은 전반적인 語料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해당 1차를 숙독하고 정통해야한다는 것이다.

2차 자료의 시간적인 層次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共時 資料이고 다른 하나는 後時 資料이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잘 구분해놓지 않으면 연구의 중간과정에서 많은 착오와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漢語大詞典》과 같은 규모가 큰 사전을 활용할 때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이러한 사전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규모가 큰 사전일수록 다수의 집필자가 참여했고 예문 또한 해당 집필자가 제한적으로 수집한 것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집필자간의 집필원칙이나 의미항 분류의 표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사전 이용에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단어는 아예 수록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연구저작이나 시대별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 자신이 방대한 혹은 몇몇 안 되는 예들로 직접 그 뜻을 풀어야 할 때도 있다.

자료에서 비교적 어려운 분야는 다른 相關語料 검색과정이다. 어휘연구에서 풍부한 예증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곤란이 따를 뿐 아니라 도출한 결론조차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당한 검색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이 문제는 기관이나 전문적인 서비스 부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 일례로 중국의 일부 학자는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과 같은 語料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체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하고 있다.²⁴⁾

자료와 관련하여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료 특히 조선시대의 자료에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분량에 있어서나 연구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는 수집단계, 정리단계, 분석단계, 이론화 단계 및 중국 자료와의 비교연구 단계 등으로 나누어 철저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연구자의 연구 수행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근대 중국어뿐만 아니라 상고 중고 현대 중국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근대 중국어 시기의 자료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이전의 언어성분 즉 상고 중고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해당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법이나 음운학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어휘(낱말)라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특정 어법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독립적인 음절을 가지므로 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同源詞의 처리 문제에서는 음이 더 부각된다.

연구 능력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정 수준의 논리학적 소양이 있어

24) 그러나 이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고 중고 현대의 語料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과정에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학에서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미의 세계”이다. 의미의 세계는 일견 폭발하는 불꽃과도 같아서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보이나, 연구자는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연관성을 밝히고 層次를 확정지어야 한다. 한 낱말이 두 세 개의 의미를 가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나, 단음절어나 빈도가 높은 복음절어의 경우 의미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²⁵⁾ 이를 정연하게 배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의 논리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능력 방면의 요소는 대량의 용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대상의 분량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휘는 그 자체가 수량이 많으므로 그에 따라 분석할 단위도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마련이다.²⁶⁾

5. 맺는 말

근대 중국어 어휘연구는 중국에서도 역사가 비교적 짧은 분과학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방면에 관련된 우리의 자료도 풍부하고 타 분야의 중국어 연구 인력도 상당한 규모를 갖춘 만큼,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 새로운 학문 분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최근 근대 중국어의 어법학이나 성운학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예를 보더라도 어휘연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대 중국어 어휘 연구의 구성과 요건에 대한 소개나 인식이 미흡했던 점은 이 분야의 관심이 저조했던 원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25) 일례로 《漢語大詞典》에 실린 “起”의 의미항은 70개가 넘는다.

26) 부연할 것은 이상의 자질에 관한 논의가 자칫하면 “수퍼맨”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나, 본고의 의도는 그만큼 어휘 연구가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연구자도 그에 상응하는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에 존재하는 다수의 한자 어휘가 근대 중국어 시기에 생겨난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근대 중국어 어휘는 연구를 고려할 분야가 아니라, 우리말의 일부(근대 중국어 시기에 생겨난 한자어)를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 李宜哲(1703-1778) 《朱子語類考文解義》,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
白斗鏞(1888) 《註解語錄總覽》, 翰南書林
顧之川(2000) 《明代漢語詞彙研究》, 河南大學出版社
劉堅(1985) 《近代漢語讀本》, 上海教育出版社
劉堅, 蔣紹愚(1990)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 商務印書館
劉堅 外(1992) 《近代漢語虛詞研究》 語文出版社
馬蓮(2006) <談談兩漢詞彙的分期歸屬問題>, 《學術論壇》 2006年第2期
박재연(2002) 《中朝大辭典》, 선문대학교출판부
李宗江(1999) 《漢語常用詞演變研究》, 漢語大詞典出版社
呂叔湘(1985) 《近代漢語指代詞》, 學林出版社
王力(1988) 《漢語史稿》, 《王力文集》 第九卷 山東教育出版社
汪維輝(2000)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大學出版社
袁賓(1987) <論近代漢語>, 《廣西大學學報》 1987年 1期
柳鐸一(1990) <朱子書節要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 《書誌學研究》 第5,6合輯, 연세대학교
학서지학회
李無未, 邱宏香(2006) <漢語史研究基本理論範疇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6年第2期
蔣紹愚(1989) 《古漢語詞彙綱要》, 商務印書館
蔣紹愚(1994) 《近代漢語研究概況》, 北京大學出版社
蔣紹愚(1999) <兩次分類一再談詞彙系統及其變化>, 《中國語文》, 第5期
蔣紹愚(2005)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蔣紹愚(2006)〈漢語詞義和詞彙系統的歷史演變初探—以“投”爲例〉,《北京大學學報》,2006.

第4期

朱慶之 編(2005)《中古漢語研究》,第二集,商務印書館

鄒德文,汪銀峰(2006)〈漢語史分期問題分歧探因〉,《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6年第2期

太田辰夫(1991)《漢語史通考》,江藍生,白維國譯 重慶出版社

胡明揚(1992)〈近代漢語的上下限和分期問題〉,胡竹安 楊耐思 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

商務印書館

姜勇仲(1995)《朱子語錄解研究》,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姜勇仲(2006)《朱子語類詞彙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中文提要》

在韩国近代汉语词汇研究是汉语研究的领域中最薄弱的一个分野. 所以有必要提倡这一分野的研究. 在这一点上, 我们要弄清近代汉语词汇研究的构成和研究或研究者的基本条件. 在构成方面, 不妨借鉴蒋绍愚先生的框架, 如: 1. 词语的考释. 2. 常用词演变的研究. 3. 构词法的研究. 4. 各阶段词汇系统的研究. 5. 近代汉语词汇发展史的研究. 6. 专书词汇的研究. 假如再考虑韩国的情况的话, 可以把朝鲜时期近代汉语词汇研究成果的研究加进去. 在条件方面, 本文提到了三个内容, 如: 1. 理论. 2. 资料. 3. 研究能力.

在具体论述中, 还介绍了中国方面有关汉语史分期问题的讨论和近代汉语时期的上限和下限. 目前为止, 在汉语词汇史研究方面最前卫的理论框架就是由蒋绍愚先生提出的“汉语历史词汇学”, 本文对此也作了简单介绍.

關鍵詞：近代中國語, 語彙研究, 構成, 要件, 中國語歷史語彙學, 朝鮮時代近代中國語語彙研究資料